

영혼을 돌보는 정치는 어떻게 가능한가?

-박성우(지음), 『영혼 돌봄의 정치』(인간사랑, 2014)를 읽고 나서-

정수복(사회학자/작가)

신선한 지적 충격

2015년 9월 16일 저녁 아산정책연구원 2층 회의실에서 열린 ‘아산서평모임’에서는 스무 명 정도의 학자들이 『영혼 돌봄의 정치-플라톤 정치철학의 기원과 전개』를 읽고 함께 모여 이야기를 나누었다. 이 책의 저자 박성우 교수는 서울대학교 외교학과를 졸업하고 시카고 대학교 정치학과에서 2002년 플라톤의 정치사상에 관한 논문으로 박사학위를 받고 귀국하여 중앙대학교 정치국제학과에서 가르치다가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로 옮겨 가르치고 있는 중진 학자다. 그의 관심은 고대정치사상에서 출발하여 국제정치사상과 현대정치이론에 이르고 있다. 그는 이 책의 서문에서 한국의 학자로서 플라톤의 정치사상을 연구하는 일이 갖는 의미와 연구 방법에 대해서 질문을 던진다. “이유 불문하고 자신이 선택한 정치사상가의 텍스트를 엄밀하게 해석하고 이와 관련된 학계의 업적을 성실하게 추적할 것인가? 아니면 ‘내가 속한 사회, 국가, 세계에 대한 보다 나은 이해를 연구의 방향과 목적으로 삼을 것인가?’(7쪽) 이런 문제에 대해 박성우 교수는 다음과 같이 자신의 생각을 정리하고 있다. “정치사상 연구자들은 자신이 속한 사회의 현실적 문제들로부터 독립성을 가져야 한다고 본다. (...) 당면한 시대적 문제에 ‘지나치게 무관심하고 무책임하다’는 세간의 비난을 받을지라도 학문적 문제의식에 있어서 엄정한 독립성을 유지해야 한다. (...) 정치사상 연구는 교육을 통해서든 학문 활동을 통해서든 궁극적으로 자신이 속한 공동체에서 건전한 시민을 양성하는데 기여해야 하지만, 이와 함께 공동체가 요청하는 공동선의 범주를 어느 정도 초월할 수 있어야 한다. (...) 정치사상이 보편성을 잃고 종파성을 보이면 그 정치사상은 정치사상으로서의 본질적 가치를 잃고 이데올로기로 전락한다.”(8-9쪽) 그러나 이는 양자택일의 문제가 아니라 어디에 비중을 둘 것인가의 문제다. 유학시절과 학자 생활 초기에는 앞 쪽에 비중을 두지만 연구 생활이 진행되고 학문이 성숙할수록 뒤 쪽에 비중을 두는 것이 일반적인 경로일 것이다.¹⁾ 이 글에서는 ‘건전한 시민 양성’을 위한 정치사상에 비중을 두고 논의를 전개해 볼 것이다.

1) 정치사상을 연구하는 학자에서 머무르지 않고 정치사상가가 되려면 텍스트에 대한 독창적인 해석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자기 자신의 사상을 만드는 단계로 진입해야 한다. 그 과정에는 마키아벨리를 비롯한 정치사상가들이 그랬듯이 현실 문제에 대한 학자의 고민이 작용할 수밖에 없다. 현상학적 정치철학을 연구한 김홍우도 그런 궤적을 보여준다. 그의 관심은 『현상학과 정치철학』(문학과지성사, 1999)에서 『한국정치의 현상학』(인간사랑, 2007)으로 변화를 겪었다.

로 이해하고 ‘정치’를 어떻게 보는가 하는 데 따라 정치의 세계와 행위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정치는 도덕의 세계와 동떨어져 있는 살벌한 동물들의 싸움과 같다고 하면 정치의 마당은 거친 사람들만이 설쳐대는 판이 될 것이고, 이해타산으로 주고받는 시장 체제와 같다고 보면 정치계는 계산의 명수들로 짜일 것이다. 또한 정치는 다름 아니라 음모술수의 능력일 따름이라고 이해하면 겉과 속이 다른 삶을 일상화하여 그렇게 사는 데 익숙한 사람들이 만드는 음모의 경쟁 장이 되어, 거기서 승자로 올라서는 간교한 사람들이 주름잡게 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일 터이다. 또한 정치의 목표는 배불리 잘 먹여 살리는 일이라고 보면 모든 에너지를 그 방향으로 쏟아 부을 것이고, 서로 보살펴 주는 공평한 사회를 만든 데 있다고 하면 정치는 그런 데 관심을 두고 힘을 기울이게 될 것이다.”⁴⁾

위에서 말한 정치에 대한 이해가 현실에 기반을 둔 현실주의적 정치 이해라면 다른 쪽에는 타락한 현실을 극복하고 초월하는 이상주의적 정치이해가 있다. 영혼 돌봄의 정치는 서양 철학의 아버지 소크라테스가 제시한 이상적인 정치의 모습이다. 영혼을 돌본다는 것은 시민 개개인의 조화로운 영혼의 상태에서 삶을 유지하게 돕는 것이다. 소크라테스가 말하는 조화로운 영혼이란 “절제와 질서를 갖춘 영혼”을 의미한다.(154쪽) 그가 볼 때 타인의 영혼을 돌보는 정치가야말로 진정한 정치가이다. 그래서 소크라테스는 모든 사람이 훌륭한 정치가라고 인정한 페리클레스를 다른 각도에서 평가했다. 소크라테스가 볼 때 페리클레스는 시민들을 “게으르고 비겁하고 수다스러우며 돈을 좋아하게 만듦”으로써 시민들의 영혼을 타락시킨 정치가이다.(152쪽) 흔히 정치가는 시민들이 원하는 것을 빨리 알아차리고 그것들을 대중 연설을 통해 정식화함으로써 대중의 마음을 선취하는 사람으로 생각된다. 소크라테스의 시절 소피스트들은 정치를 지망하는 젊은이들에게 수사학과 연설법을 가르쳤다. 소크라테스가 볼 때 그들이 가르치는 수사학은 거짓 수사학이었다. 그가 볼 때 “진정한 수사학이란 천문 및 도덕의 조화를 염두에 두고 시민들의 영혼에 모든 관심을 쏟으면서 이들의 정의나 절제 및 그 밖의 덕을 증진할 수 있도록 하는 반면, 부정의나 무절제를 배제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을 의미한다.(148쪽) 이런 의미에서 진정한 수사학으로 시민의 영혼을 돌보는 정치가가 진정한 정치가이다.

시민의 영혼을 돌보는 정치가는 우선 자신의 영혼을 돌보아야 한다. 영혼을 조화롭게 만들기 위해서는 우선 자기 자신과 내적인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이 조화는 결국 절제를 의미한다. 자기 자신과의 내적 조화, 절제를 갖추는 때 다른 사람들과의 조화도 가능하다. 따라서 공동체 전체의 조화와 질서를 이루려면, 자기 자신의 절제 뿐 아니라 다른 이들의 영혼의 내적 조화도 전제되어야 한다. 이런 맥락에서 공동체의 최고 목표는, 그 구성원 각각을 절제 있고 조화롭게 만들기 위해 영혼을 돌보고 개선하는

4) 박영신, 『실천 도덕으로서의 정치-바츨라브 하벨의 역사참여』 (연세대학교 출판부, 2000), 169쪽.

것이어야 한다.”(155쪽) 그것이 영혼 돌봄의 정치다. 정치를 권력 투쟁의 장으로 보는 현실 정치의 입장에서 보면 소크라테스가 말하는 영혼 돌봄의 정치는 현실 정치와 동떨어진 공상적 이야기로 들릴 수 있다. 그러나 정치의 목표가 현실과 이상간의 거리를 좁히는 데에 있다면 영혼 돌봄의 정치는 정치가 추구해야 할 궁극적 이상을 제시하고 있다.

왜 영혼을 돌보는 정치인가?

정치사상을 연구할 때 연구자는 연구 대상이 된 텍스트를 일차적으로 저자가 그 글을 쓰던 당시에 넣어서 이해할 수 있어야 하고 이차적으로는 그 텍스트를 지금 여기의 문맥 속에 넣어 그 함의를 논의할 수 있어야 한다. 소크라테스가 살았던 그리스 도시 국가의 시대와 21세기 오늘의 한국사회라는 시공간 상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그 시대의 논의가 현재 여기에 갖는 함의는 무엇인가를 질문해야 한다. 철학자, 수호자, 생산자를 구별하는 신분제 사회였던 고대 그리스 도시국가 시대의 정치사상이 만인의 자유 평등을 내세우는 오늘의 대한민국 사회에 어떤 의미를 갖는가? 지난 세기만 되돌아보더라도 식민지 시대와 민족해방, 분단과 전쟁, 빈곤과 허기(보릿고개)의 시대, 자유와 민주주의 추구, 개발과 번영과 근대화를 약속한 정권, 경제성장과 국민소득의 증대, 고속도로 건설과 중화학공업의 성장, 민중과 민족을 내세운 민주화 운동의 시대, 아파트와 자가용을 소유한 중산층의 형성, 세계화와 정보화, 민주화와 지방화, 인터넷과 스마트폰의 일상화, 소비사회와 무규범, 쾌락주의의 범람과 세계 최고의 자살률을 경험하고 있는 대한민국에서 영혼 돌봄의 정치는 어떤 의미를 갖는가? 그에 대한 답은 분명하다. 그동안 우리 사회는 물질적 성장과 육체의 즐거움을 강조하면서 영혼 돌봄을 경시하여 물질적 번영에도 불구하고 영혼의 빈곤을 경험하고 있다.⁵⁾ 바로 그런 점에서 지금이야말로 “영혼 돌봄의 정치”가 필요한 시점이다. 국민행복과 영혼 돌봄을 연결시키는 정치가 필요한 시점이다.

영혼 돌봄의 종교적 차원

영혼이라는 말은 근대의 합리주의적 과학관이 종교를 몰아낸 이후에 학문 세계에서는 거의 쓰지 않는 용어다. 영혼의 존재여부는 계몽주의 시대의 토론 주제였다. “육체는 영혼의 감옥”이라면서 영혼을 중시하고 육체를 경시하는 영혼불멸설은 근대 이전의 사상이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라는 찬송가 가사도 있듯이 영혼은 흔히 종교에서

5) 이런 상황은 근대의 특징이기도 하다. 막스 베버는 이를 두고 “가슴이 없는 감각주의자 sensualist without heart”와 “정신이 빠진 전문가 specialist without spirit”이라고 표현했다.

다루는 영역으로 알려져 있다. 신플라톤주의자 플로티누스(2008: 11)에 따르면 “영혼은 제 본향인 이데아(의) 세계로부터 떨어져 이 세상에(서) 타락”한 상태에 있다. 그렇다면 플로티누스에게 있어서 영혼 돌봄이란 “이 세상에서 인간의 영혼이 정신을 통하여 경험하게 되는 다양한 사실들로부터 마침내 하나에게로 상승하는”것을 말한다.⁶⁾ 소크라테스가 말하는 “너 자신을 알라!”는 말은 인간의 영혼이 스스로를 각성하여 품위 있고 고상한 존재로 상승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말해준다.

그런데 이 책은 영혼soul, 영성spirituality, 정신spirit, 마음mind 등 인간 내면의 여러 차원을 구별하지 않고 플라톤의 텍스트에 대한 해석으로 논의를 일관하고 있다. 영혼의 존재여부, 영혼의 개념 규정이 없는 상태에서 영혼 돌봄과 영혼 돌봄의 정치를 논의하고 있어 책을 읽으면서 사고를 진전시키는데 혼란을 불러일으킨다.

그런 문제들을 뒤로 하더라도 이 책에 대해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할 수 있다. 영혼을 돌보는 정치 공동체가 가능한가? 그것은 종교의 역할 아닌가? 그것은 정치와 종교 분리의 원칙을 거부하는 것인가? 서구의 오랜 종교전쟁의 경험에서 그 원형이 만들어진 근대국가는 종교와 정치의 분리라는 원칙으로 움직인다. 서방세계와 서구문화에 비판적인 입장을 취하는 이슬람공화국은 정교분리의 원칙을 거부하고 종교와 정치를 다시 연결시켰다. 만약 정치가 영혼 돌봄이라는 역할을 맡게 된다면 그것은 정교분리의 원칙을 버리고 다시 억압적인 정교일치의 차원으로 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닌가? 라는 의문이 들 수 있다.

자유주의적 입장에서는 칼 포퍼가 『열린사회와 그의 적들』 1권에서 플라톤의 정치사상을 전체주의적 사상의 원조라고 비판했다. 그러나 박성우 교수는 플라톤의 정치사상이 전체주의의 기원이라고 비판한 것을 받아들이지 않는다.⁷⁾ 그는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소크라테스와 플라톤이 제안하는 영혼 돌봄은 넓은 의미의 정치 영역에서 이뤄지지만, 외적 강제나 전체주의적 권위 없이 이뤄질 수 있다는 것이다.”(272쪽) 박성우 교수는 “공적인 영역에서 영혼 돌봄이 수행될 수 있는 좋은 수단을 바로 정치 참여에서” 찾음으로써 영혼 돌봄의 정치가 전체주의로 변질될 수 있는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고 있다.(272쪽)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혼 돌봄의 근거에는 종교성의 차원이 존재하지 않는가? 라는 질문이 가능하다. 이날 모임의 지명 토론자이자, 정치사상을 연구하는 김용민 교수에 따르면 “소크라테스는 자신의 철학적 여정이 ‘소크라테스보다 현명한 사람은 없다’라는 델피 신탁을 검증하는 신적 사역에서부터 시작되었고, 삶을 살아가면서 다이모니온의

6) 조규홍, 율진이 머리말, 플로티누스(지음), 조규홍(옮김), 『영혼-정신-하나: 플로티누스의 중심 개념』, (나남, 2008), 5쪽.

7) 칼 포퍼(지음), 이한구(옮김) 『열린사회와 그 적들 1』(민음사, 2010).

목소리를 들어왔음을 밝히고 있는데, 이것은 박성우 교수의 지적대로 소크라테스의 ‘개별적 종교성’이 그의 철학의 기초를 이루고 있음을 보여준다.”(김용민, 2015: 6) 그렇다면 김용민 교수가 말하듯이 소크라테스식 영혼 돌봄의 정치는 소크라테스식 종교가 전제되어야 하고 일반적인 영혼 돌봄의 정치는 종교를 전제해야 한다. 그렇다면 종교가 정치의 우위에 서게 되는데 오늘날 정치와 종교의 관계를 이렇게 설정한다면 이슬람 근본주의에서 보듯이 매우 위험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그러므로 영혼 돌봄의 정치가 현실적으로 가능하기 위해서는 이런 위험성을 피하면서 영혼을 돌볼 수 있는 정치는 어떻게 가능한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이날 모임에서 또 한 사람의 지명 토론자였던 기독교 윤리학자 박충구 교수의 토론문에 따르면 “소크라테스가 다이아모니아의 소리, 거의 종교적 차원의 선협적 양심의 소리를 들었다는 것은 매우 주관적인 것이므로 이성적으로 규범화하기 어렵다. 이것을 종교적 차원에서 본다면 예언자들의 예지 능력과 같은 것인데 예언자들의 세계에서는 신의 존재를 전제하고 있는 ‘신 인식에 동의하는 이들의 공동체’가 있기 때문에 신의 소리를 의무와 책임으로 수납하는 특별한 신앙적 행위가 가능하다. 그리고 이러한 신의 명령에 복종하는 신앙적 행위는 역사적 과정을 통하여 그 정당성 여부가 가려짐으로써 여과된다.”(박충구, 2015: 3) 소크라테스는 그런 종교 공동체를 전제하지 않고 이성적 합의 가능성과 대화의 가능성을 선택하고 있지만 그의 활동의 저변에는 “종교적 차원의 선협적 양심의 소리”가 자리하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즉 소크라테스의 활동은 현실을 벗어난 초월의 세계와 이어져 있다. 그의 현실적 차원에서 활동은 초월적 차원과 분리될 수 없다. 소크라테스의 활동에는 신의 존재를 전제하지 않지만 초월의 세계와 이어지는 ‘영성’ spirituality의 차원이 있는 것이다.

이런 문제에 대해 저자인 박성우 교수는 자유주의자와 공화주의자 모두 정치가 개인의 영혼 돌봄 문제에 관여하길 꺼려하지만 영혼 돌봄의 정치를 “공동체 안에서 시민들이 좋은 삶을 탐구하고 추구할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의미의 정치”(272)로 이해한다면 영혼 돌봄의 정치가 자유주의나 공화주의 이상과 배치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에서 다음과 같이 자신의 논의를 정당화한다. “자유주의적·공화주의적 정치 원리에 부합하려면 개인의 영혼 형성에 대해 국가나 정치가 중립성을 유지해야 한다. 그러나 국가가 엄정하게 중립성을 유지하는 한, 공동체 안에서 정체성을 잃었거나 다중에 의해 무고하게 상처받은 영혼들이 치유 받을 길이 없다. 이러한 상처받은 영혼의 치유를 종교 집단에 떠넘기거나 개인이 감내해야 할 문제로 간단하게 치부할 일은 아니다. 공동체 안에서 이러한 존재들이 늘어나면 궁극적으로는 공화주의적 덕성이나 자유주의적 가치도 위협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271쪽) 게다가 “영혼 돌봄의 정치는 반드시 서구 근대의 역사적 경로를 반복할 필요가 없다. 다시 말해 영혼 돌봄의 정치는 서구 근대의 역사가 우려하는 바와 같이 종교와 정치, 혹은 철학과 정치의 권위주의적 결합을 전제할 필요가 없다.”(271-272쪽) 박성우 교수에 따르면 “영혼 돌봄의 정

치는 흔히 오해하는 바와 같이 좋은 삶에 대한 절대적인 기준을 정해 놓고 그것을 개인에게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안에서 시민들이 스스로 좋은 삶을 탐구하고 추구할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의미의 정치이다.”(272쪽)

박성우 교수는 한국의 정치사상 연구자로서 서구의 역사적 경험에서 나온 ‘근대적 선입견’을 극복하려고 한다.⁸⁾ 그가 볼 때 “우리가 경험한 바 없는 서구 근대의 역사적 경험 때문에 현대 정치의 가장 심각한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을 처음부터 배제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라는 것이다.(273쪽)

국민행복, 좋은 삶, 영혼 돌봄

며칠 전 관공서에 갔다가 사무실 벽에 걸려있는 박근혜 정부의 국정기조를 보게 되었다. “경제부흥, 국민행복, 문화융성, 평화통일 기반구축”이라는 네 가지 목표가 국정지표로 제시되어 있었다. 나는 그 가운데 ‘국민행복’이라는 지표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 그것이 ‘좋은 삶’ 그리고 ‘영혼 돌봄의 정치’와 어떻게 관련되는가를 생각해 보게 되었다.⁹⁾ 좋은 정치가 결국 시민들이 좋은 삶을 살 수 있도록 돕는 정치라면 그것은 국민행복을 목표로 해야 한다. “인간은 행복을 추구한다. 행복이 보장되는 삶이 좋은 삶이며, 정치의 목적은 좋은 삶을 현실의 세계에서 실현하는 데 놓여있다. (...) 정치는 정의에 입각해서 좋음과 행복을 부여하는 과정이다.”(김용민 외, 2014: 서문, 5쪽)

그렇다면 ‘좋은 삶’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자신의 몸만이 아니라 영혼을 돌보면서 사는 일이다. 생물학적 욕구만이 아니라 ‘의미의 문제’에 주의를 기울이면서 사는 일이다. 외형적 삶과 내면적 삶 사이에 균형이 이루어지는 삶이다. 그것은 생물로서의 물질적 생존 조건을 만족시키면서 그와 동시에 우주와 세계와 정치공동체와 이웃과 가족이란 무엇이며 그 안에서 살아가는 나의 존재의미는 무엇인가를 질문하며 사는 삶이다. 소크라테스가 말하듯이 영혼의 조화와 마음의 안정을 추구하는 삶이 ‘좋은 삶’이라면 정치란 공동체의 안전과 질서, 물질적 생존과 번영을 넘어서 사회를 구성하는 모든 사람들이 ‘좋은 삶’을 추구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주고 격려하고 지지하는 것을 궁극적인 목표로 삼아야 한다.

“군인이나 부자, 가난한 자들 중 누가 지배하느냐가 아니라, 명예에 대한 과도한 추

8) 여기에서 서구와 다른 근대 진입의 과정을 경험했고 서구와 구별되는 문화전통을 가진 한국 사회에서 ‘영혼 돌봄의 정치’는 어떤 방식으로 가능한가? 라는 질문을 제기할 수 있다.

9) 급진적 상대주의와 극단적 회의주의를 넘어서면 “무엇이 좋은 삶인가”를 묻게 된다. 김용민 교수의 논문 “행복의 철학과 영혼치료학으로서의 철학의 위상 정립을 위한 키케로의 시도”(2013)와 김 교수가 편집한 『좋은 삶의 정치사상』(이학사, 2014)을 참조할 것.

구, 만족할 줄 모르는 탐욕, 자유에 대한 지나친 충동”은 정체를 타락시킨다. “소크라테스는 정체政體의 결함과 그 구성원들이 잘못 설정한 삶의 가치와 목표(명예, 부, 자유, 권력)를 연결시킨다. (...) 이기적인 방법을 동원하면, 적어도 단기적으로는 정의로운 사람들보다 더 많은 명예와 부, 권력을 얻을 수 있다고 믿는 것은 틀린 것이 아니다. 틀린 것은 명예나 부, 권력의 추구가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삶의 가치라고 믿는 것이다.”(216-217) 그렇다면 ‘좋은 정치’good politics란 곧 ‘좋은 삶’good life를 위한 정치라고 할 수 있고 그런 정치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모든 사람을 ‘좋은 사람’good man으로 나아가서는 ‘좋은 시민’good citizen으로 교육시킬 수 있어야 한다. ‘좋은 교육’good education 없이 좋은 사람이나 좋은 시민이 나올 수 없기 때문이다.

모든 사람이 철학자가 되는 영혼 돌봄의 사회

자유주의적 입장에서는 칼 포퍼가 『개방사회와 그의 적들』 1권에서 플라톤의 정치사상을 전체주의적 사상의 원조라고 비판했다. 철인왕이나 성군에 의한 덕치로 돌아가지 않고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유지하면서 인간의 영혼을 돌보는 정치는 불가능한가? 닫힌 사회가 아니라 열린사회에서, 다시 말해서 폐쇄적인 전체주의 사회가 아니라 개방적인 민주주의 사회에서 영혼 돌봄의 정치는 가능한가? 박성우 교수는 가능하다는 입장에서 그 구체적 방안을 찾아보자는 입장이다. 정치의 영역을 그저 생존과 안전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역할에 한정시키지 말고 시민들의 정치참여를 증진시키면서 시민들로 하여금 좋은 삶이 무엇인지를 성찰하고 그것이 가능한 사회를 만드는 일에 적극적으로 나서게 하는 정치를 우리가 추구해야 할 이상적인 정치로 설정하자는 것이다.

시민들이 정치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현실에 관심을 가지는 생활인의 자세와 더불어 현실로부터 한 걸음 떨어져 현실을 관조하는 철학자의 자세가 필요하다. “소크라테스는 자신의 행복을 다른 사람에게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면서 “모든 사안에 있어서 자기 자신만을 의지하는 사람이 가장 훌륭한 삶을 살 준비가 된 것으로” 생각한다. 자기 충족과 자기 독립성을 갖춘 사람만이 절제 있고 용기 있으며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이야기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런 사람은 무엇이 생겨나고 사라질 때(예컨대 재산의 획득과 손실, 자식의 탄생과 죽음에 따라) 지나치게 즐거워하거나 괴로워하지 않을 것이라고 한다. (...) 이는 분명 삶과 죽음, 부와 빈곤, 자식의 생사에 이르기까지 모든 문제에 있어서 한 걸음 떨어져 지나치게 열 내지 않는 관조적 삶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러한 지나침이 없는 삶은 철학자가 ‘전체에 대한 지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공동체의 일에 소홀하거나 초월할 수밖에 없는 관조적 삶이라기보다, 일반인들이 상식적으로 취할 수 있는 세상일에 어느 정도 거리를 두는 정도의 관조적 삶이다.”(104-105)

철학자는 여러 사람과 어울려 즐기기보다는 홀로 생각하기를 즐긴다. 그는 혼자서 진리를 추구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다. 철학자는 정치가나 기업가와 달리 활동적 삶보다 관조적 삶을 좋아한다. 소크라테스는 “모름지기 철학자는 오로지 ‘참으로 있는 것’에만 관심을 갖고, 그것과 함께 지성과 진리를 낳으며, 앞에 이르는 것을 삶의 목적으로 하고, 이런 삶이 아무리 힘든 진통을 수반하더라도 이를 그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222) 그런 점에서 데카르트는 소크라테스의 후예다. 데카르트는 거짓 상상력으로 스스로를 속이려고 노력하는 것에 대해 동의하지 않았다. 그는 진리를 아는 것이 인간이 도달하는 가장 큰 완성이라고 생각하였기 때문에 비록 진리가 자신에게 불리한 결과를 가져오고 불쾌하게 만들더라도 계속 진리를 추구하는 삶이 가치 있는 삶이라고 생각했다.¹⁰⁾

소크라테스는 사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잘 사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잘 사는 삶’은 ‘좋은 삶’이고 그것은 진리를 추구하는 삶이고 영혼을 돌보는 삶이다. 그렇다면 철학자만 ‘좋은 삶’을 추구할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좋은 삶’을 추구해야 한다. 다시 말해서 모든 사람이 어느 정도 철학자로 살아가야 한다. 철학자는 진리를 추구하며 자신의 영혼을 돌보는 사람이다. 모든 시민이 시민철학자가 되어 자신의 영혼을 돌보고 타인의 영혼을 돌보며 좋은 삶이 가능한 사회를 만드는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좋은 삶이 무엇인가를 물으며 그런 삶이 가능한 좋은 사회를 만드는 일에 나서야 하는 것이다. 영혼 돌봄의 정치는 성찰하는 시민들이 대화와 토론을 통해 좋은 삶이 가능한 사회를 만들어 가도록 지지하고 지원하는 정치가 될 수밖에 없다. 그러기 위해서는 시민철학자를 만드는 시민교육이 있어야 한다.

“소크라테스의 일상적 삶은 전체의 진리를 탐구하고 명상하는 시간과 일반 시민들이나 소피스트들과 대화를 하는 시간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할 수 있는데, 이 대화의 시간은 대화 상대자들의 영혼을 돌보고 형성하는 시간이고, 소크라테스가 정치 참여를 하는 시간이며 교육을 펼치는 시간이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본다면 그가 어떤 대화의 상황에 놓여있던 간에, 청중을 상대로 산파술이나 논박적 대화법을 활용하고 있는 소크라테스는 정치를 행하고 있는 동시에 교육을 행하고 있다고 할 수 있으며, 아테네에서의 그의 삶은 교육을 통한 정치적 참여의 연속인 것으로 나타나게 된다. 소크라테스는 권력의 행사와 관계되는 직접적 의미에서 정치가 아니라 영혼을 형성하는 교육과 관계되는 직접적 의미에서 정치에 일상적으로 관여하고 있는 것이다.”(김용민, 2015: 3-4)

소크라테스는 대규모 집회에서의 연설이 아니라 소규모의 면대면 집단에서 이야기를 주고받았다. 거기에서는 언제나 즉흥적인 문답이 가능하다. 그렇다면 영혼 돌봄의 정

10) 19세기 프랑스의 여성 작가 조르주 상드도 “진리를 받아들이자. 그것이 우리를 놀라게 하고 우리의 견해를 바꾼다할지라도”라는 말을 남겼다.

치는 일상의 작은 모임에서 자유로운 의사소통을 통해 이루어지는 미시 정치라고 할 수 있다. 정치권력을 사용하는 강제적 차원이 아니라 사생활의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대화를 통해 어떻게 자신의 영혼과 서로의 영혼을 돌 볼 것인가를 생각해 보아야 한다. 남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적절한 질문을 하고 그에 대해 답변하는 민주적 대화 방식의 일상화, 그것이야말로 시민 교육의 핵심이다.¹¹⁾

영혼 돌봄의 교육학

영혼 돌봄의 정치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영혼 돌봄의 정치사상을 넘어서 영혼 돌봄의 사회학, 영혼 돌봄의 심리학, 그리고 무엇보다도 영혼 돌봄의 교육학이 필요하다. 영혼 돌봄의 주체와 대상, 내용과 방법을 심도 있게 연구해야 한다. 영혼 돌봄의 교육은 소크라테스의 문답식 교육 방법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다. 소크라테스는 대화를 통해 사람들을 좋은 사람, 좋은 시민, 유덕한 시민으로, 다시 말해 좋은 영혼을 갖춘 인간으로 이끌고자 했다. 그런 행위 자체가 영혼 돌봄의 정치다. 영혼 돌봄의 정치는 대화와 문답을 통해 시민들에게 지혜, 절제, 용기, 정의의 덕목을 함양시키는 정치다. 수사학적 연설이 아닌 문답식 대화의 장점은 어디에 있는가? “문답식 대화는 상호 협조의 과정을 통해 궁극적으로 올바름에 도달하려는 목적을 갖는다. 수사학이 경쟁을 목적으로 한다면, 문답식 대화는 서로의 일깨움mutual enlightenment을 목적으로 한다.”(159)

“철학적 메시지가 효율적으로 전달되기 위해서는 그 내용이 명료하게 진술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메시지를 전달받는 사람의 영혼이 온전하게 그 내용을 받아들여야 한다. 소크라테스의 철학적 탐구는 궁극적으로 삶의 방식을 변화시키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맥락에서 소크라테스의 철학적 활동은 동시에 많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특정 상황에서 특정인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일대일의 변증법적 대화를 통해 대화 상대자의 영혼을 개선시키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다. 소크라테스는 자신의 철학적 활동을 대표할만한 어떤 저작도 남기지 않았다. 소크라테스에게 철학적 탐구는 영혼의 개선에 목적이 있기 때문에, 대화 상대자를 전제로 살아있는 말이 아닌 글은 어떤 경우에도 그 목적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기 때문이다.”(169)

소규모 집단에서 문답을 하다보면 어느 순간 자신의 생각을 변화시킬 수 있고 궁극적

11) 루소는 『에밀』이라는 저서를 시작하면서 플라톤의 『국가』는 정치에 관한 책이 아니라 교육에 관한 가장 아름다운 책이라고 평가했다. 김용민은 영혼 돌봄의 정치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시민 스스로가 철학자와 지도자의 자질을 갖추어야 한다고 보았다. 루소 정치사상을 전문적으로 연구한 김용민(2015: 7)은 “소크라테스식의 영혼 돌봄의 정치가 현대적 유용성을 더욱 포괄적으로 갖기 위해서는 루소식의 교육에 대한 고려가 필수적이라고 생각한다.”

으로는 문답자 사이에 동의에 이를 수 있다. 문답을 통해 지혜, 절제, 용기, 정의를 배울 수 있다. 소크라테스만이 아니라 싯다르타와 공자를 비롯해 인류의 위대한 스승들은 언제나 제자들과 문답을 주고받으며 진리를 전파했고 민주주의의 근간이 된 계몽사상은 프랑스의 살롱 문화에서 이루어진 대화를 통해 발전했다. 가정과 학교에서의 시민교육은 문답과 대화를 통해 자신의 생각을 만들고 타인의 생각을 경청하며 더 나은 의견과 생각을 만들어나갈 줄 아는 시민을 형성하는 것을 그 목표로 삼아야 한다. 영혼 돌봄의 정치는 시민 교육과 함께 할 때 그 실현이 가능하다. 영혼 돌봄의 정치는 “어느 한두 사람의 결단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다. 공동체에 속해 있는 모든 구성원들이 적어도 이론적으로 그 취지에 동조하고, 자신의 수준에 맞게 적절하게 역할을 담당해야”하기 때문이다.(217쪽)

우리 학계의 자율성 높이기

『영혼 돌봄의 정치』의 저자인 박성우 교수는 레오 스트라우스 Leo Strauss, 조셉 크롭시 Joseph Cropsey, 네이슨 타르코프 Nathan Tarcov로 이어지는 정치사상연구에서의 시카고학파인 레오 스트라우스 학파에 속해 공부했으면서도 레오 스트라우스를 일정 부분에서 비판하는 연구를 감행했다. 그런데 이 책의 참고문헌을 보면 총 202편 가운데 영어로 발표된 외국학자의 논문과 저서는 191편이 제시되어 있는 반면 국내 학자의 저서와 논문은 11편이 제시되고 있다. 그 가운데 저자의 논문 7편을 빼면 국내 학자의 연구물은 오직 4편에 불과하다. 영어 논문과 저서의 발행연도를 보면 1930년대에서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플라톤을 중심으로 한 영미권 학계의 정치사상 연구서들이 망라되어 있다. 이를 보면 박성우 교수가 미국의 시카고 대학 정치학과에 유학하여 열심히 연구했고 그 결과로 박사학위를 받고 귀국하여 지난 10여 년 동안 연구를 계속한 노력의 흔적이 고스란히 느껴진다. 그러니까 이 저서에는 거의 20년이란 세월 동안의 학문적 노력의 결과가 스며들어 있는 셈이다. 총 377쪽의 저서에서 본문이 258쪽을 차지하고 미주가 무려 76쪽에 걸쳐 236개나 달려있어서 이 분야 연구의 성과들을 폭넓게 수용하고 활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미주는 이 저서를 학문적으로 풍부하게 하면서 이 분야 연구에 좋은 길잡이 역할을 하고 있기도 하다.

미국에 유학하여 학위 과정을 마치고 그 이후 근 10년에 걸친 플라톤 정치사상에 관해 연구한 한 학자의 연구 결과를 제한된 지면에서 충분히 논의하기는 불가능하다. 그러나 박성우 교수의 저서를 하나의 보기로 삼아 우리나라 학자들이 외국에 유학하여 박사학위를 받고 귀국하여 한국 학계에서 활동하는 과정에 대한 성찰을 해볼 수 있을 것이다. 한 학자의 머릿속에는 유학 이전에 축적된 한국사회에 대한 경험과 이해가 있고 유학 과정에서 공부한 학문의 내용이 들어 있다. 그리고 유학 이후 돌아와서 새롭게 맞이하는 한국사회의 현실과 그동안 달라진 한국학계가 있다. 이런 상황에

서 외국 유학에서 돌아온 학자는 변화된 한국 사회의 현실을 이해하고 유학 기간 동안 이루어진 국내의 연구 결과들을 점검하여 박사학위 논문을 쓸 때 염두에 두었던 미국학계가 아니라 한국학계의 문맥에 맞는 논문과 저서를 발표해야 한다. 귀국 이후 처음 몇 년은 외국에서 공부한 내용을 보고하는 형태의 글을 발표할 수 있지만 세월이 가면서 점차 한국학계를 염두에 둔 연구물을 발표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외국 유학을 마치고 귀국한 신진 학자가 소속되어 활동하는 한국학계가 과연 나름의 자율성을 지닌 학문장으로 형성되어 있는가이다. 그것은 외국 학계의 연구를 참조하면서도 한국 학자들끼리 상호참조, 비판, 토론의 구조가 형성되어 있는가의 문제이다. 그것을 달리 말하자면 해방 이후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자기가 속한 학문 영역에서 이루어진 국내 학자들이 만들어 놓은 학문적 전통 속에 자신의 연구 결과를 위치시킬 수 있는가라는 문제이다. 학계에 속한 사람이라면 다 알다시피 1970년대에 이르기까지도 우리 학계는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외국 학계의 연구 결과를 수입하고 이해하고 소개하는 수준을 크게 벗어나지 못했다. 그러나 이후 외국 유학생 수가 증가하고 한국 학자들의 학문 능력이 향상되면서 각 학문 분과에 따라 수입학문의 토착화와 우리 학문의 독자성 문제가 제기되었다. 이는 우리 현실을 우리의 언어로 설명하고 이해하고 개선해 나가려는 주체적인 학문 만들기라는 뜻을 담고 있었다. 그러나 2000년대에 들어서 강화된 세계화의 물결 속에서 학문의 장에도 세계화라는 흐름이 작용하여 우리 학문의 주체성 논의는 점차 약해지고 사회과학의 영역에서만 보자면 경제학은 말할 것도 없고 정치학, 심리학, 사회학 등의 분과 학문에서도 미국 학회의 기준을 따르는 방향으로 변화를 겪고 있다. 그러나 동아시아의 분단된 반도 남쪽에 살고 있는 한국의 사회과학자로서 우리는 어떤 사회에 살고 있으며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라는 질문을 했을 경우 우리 나름의 문제의식과 독자적인 지적 모색의 필요성이 다 사라진 것은 아니다. 한국의 사회과학자라면 세계 학계의 흐름에 관심을 기울이고 세계 여러 나라의 학자들과 지적인 교류를 계속하면서도 분단된 한반도라는 특수한 상황에 놓인 우리의 공동체적 삶이 제기하는 문제에 지적으로 대응해야 하는 지적 임무를 담당해야 한다. 그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다. 영어를 공용어로 이루어지는 세계 학계의 흐름을 따라가고 거기에 적합한 연구를 하기에 도 벅하다. 거기에다가 우리말로 우리 상황을 염두에 둔 주체적인 사회과학 연구를 하라는 요구는 학자들의 등에 또 하나의 무거운 짐을 지우는 일이다. 그러나 그 짐을 지고 갈 것이냐 내던질 것인가는 강요할 문제가 아니다. 그것은 학자 개인이 결정할 문제다. 그러나 영혼 돌봄의 정치가 21세기 한반도라는 상황에서 어떻게 가능할 것인가라는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 주체적인 학문적 자세가 필요하다는 주장에는 누구나 동의할 수 있을 것이다. 무엇이 좋은 정치인가? 어떻게 살 것인가? 좋은 삶은 어떤 삶을 말하는가? 등의 이상적인 삶과 사회에 대한 논의는 외국에서 완제품을 수입할 수 없는 사항이다. 그런 문제는 각각의 사회와 개인이 처한 종교적, 문화적, 역사적 사회적 전통과 현실적 조건을 고려하면서 주체적 성찰을 통해 이루어져야 할 문제이다. 한국 정치에서 영혼 돌봄의 정치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의 모색을 위해서는 우리 학

문의 자율성이 요구된다. 글로벌 지식장에 참여하면서도 로컬 지식장의 자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학문 활동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외국학계의 연구 결과를 참조하면서도 국내학계에서 이루어진 동료 학자들의 연구 결과를 상호 참조하고 격려하고 비판하면서 자율적인 학문 공동체를 만들어나가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김경동, 2002, 『한국사회발전론』, 집문당.
- 김용민, 2015, “영혼 돌봄의 정치: 곧 교육이다-박성우 교수의 『영혼 돌봄의 정치』에 대한 서평” 2015년 9월 16일, 아산서평모임, 토론문.
- 김용민 등, 2014, 『좋은 삶의 정치사상』, 이학사.
- 김용민, 2013, “행복의 철학과 영혼치료학으로서의 철학의 위상 정립을 위한 키케로의 시도”(2013)
- 김용민, 2004, 『좋은 삶의 정치사상』, 이학사.
- 김용민, 2004, 『루소의 정치사상』, 인간사랑.
- 김홍우, 1999, 『현상학과 정치철학』, 문학과지성사.
- 김홍우, 2007, 『한국정치의 현상학』, 인간사랑
- 박동천, 2012, 『플라톤 정치철학의 해체』, 모티브북.
- 박성우, 2014, 『영혼 돌봄의 정치』, 인간사랑.
- 박영신, 2000, 『실천 도덕으로서의 정치』, 연세대학교 출판부
- 박충구, 2015, “『영혼 돌봄의 정치: 플라톤의 정치철학의 기원과 전개』를 읽고”, 2015년 9월 16일 아산서평모임, 토론문.
- 박충구, 2014, 『종교의 두 얼굴-평화와 폭력』, 흥성사.
- 박성우, 2014, 『영혼 돌봄의 정치-플라톤 정치철학의 기원과 전개』, 인간사랑.
- 박성우, 2005, “행복의 정치: 아리스토텔레스 「니코마코스 윤리학」과 「정치학」에 나타난 철학적 삶과 정치적 삶의 의미” 『한국정치학회보』 39권 5호
- 양승태, 2013, 『소크라테스의 삶과 잘남』, 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포퍼, 칼(지음), 이한구(옮김), 2010(1997), 『열린사회와 그 적들 1권』, 한길사.

플로티누스(지음), 조규홍(옮김), 2008, 『영혼-정신-하나: 플로티누스의 중심 개념』, 나남.